



2024 인천시립미술관 건립/개관 공개포럼

다양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미술관

OUR COLLECTIVE MUSEUM

2024. 10. 31(목)

틈문화창작지대

2024 인천시립미술관 건립/개관 공개포럼

<진행>

13:30 ~ 14:00	참석자 등록	
14:00 ~ 14:05	[개회사]	김충진 (인천광역시청 문화체육관광국장)
14:05 ~ 14:10	[사업추진 현황보고]	권오승 (인천광역시청 시립미술관팀장)
[1부 주제발표]	사회 임성연 (부소속컴퍼니 대표)	
14:10 ~ 14:30	[발제1] 인천미술사 연구의 방향성	신수경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회장)
14:30 ~ 15:00	[발제2] 국내외 미술관 건립/개관 사례와 변화 양상	기혜경 (홍익대학교 교수)
15:00 ~ 15:30	[발제3]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미술담론	조경재 (프로젝트 스페이스 코스모스 대표)
15:30 ~ 16:00	[발제4] 미래지향적이며 지속가능한 미술관	김노암 (휴아트&미디어랩 대표)
16:00 ~ 16:10	[휴식시간] 인천뮤지엄파크 건축설계 영상 상영	
[2부 공유토론]	좌장 변순영 (인천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토론1] 조경재 (프로젝트 스페이스 코스모스 대표)	
	[토론2] 차기울 (인천대학교 조형예술학부 교수)	
16:10 ~ 17:00	[토론3] 정지은 (성북문화재단 문화도시정책추진단장)	
	[토론4] 엄지희 (2024 인천미술 올해의 작가)	
17:00 ~ 17:30	[종합토론]	
17:30	[폐회]	

※ 진행 시간은 상황에 따라 약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미술관

〈목차〉

[발제1] 인천미술사 조사·연구의 방향 (신수경)	5
[토론1] ‘인천미술사 조사·연구의 방향’에 대한 토론문 (조경재)	15
[발제2] 글로컬시대 지역미술관의 건립/개관 사례와 변화 양상 - 정체성 구축을 위한 전략 - (기혜경)	17
[토론2] ‘글로컬시대 지역미술관의 건립/개관 사례와 변화 양상’에 대한 토론문 (차기율)	35
[발제3]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미술담론 (조경재)	39
[토론3]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미술담론’에 대한 토론문 (정지은)	47
[발제4] AI 시대의 미술관 전략과 기술 접근성 (김노암)	49
[토론4] ‘AI 시대의 미술관 전략과 기술 접근성’에 대한 토론문 (염지희)	57

인천미술사 조사·연구의 방향

신 수 경*

I. ‘인천미술사 조사·연구’ 영역의 추진배경

인천광역시는 2016년 인구 300만(현재 3,016,520명) 시대를 맞은 국제도시로, 서울과 부산 다음으로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도시다. 하지만 인천은 국내 특별·광역시 중 시립미술관이 없는 유일한 곳이다. 잘 알다시피 1995년 34년 만에 지방선거가 열리면서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화되었으며, 이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공미술관 설립이 붐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이미 1988년 시립미술관이 문을 연 서울(2002 서소문관 이전 개관)을 비롯해, 1992년 광주, 1998년 대전과 부산에서 시립미술관이 각각 개관했다. 2000년 들어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이 개정되어 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 등록 업무 등의 행정권한이 문화부 장관에서 시장이나 도지사에게 이양되면서 경상남도(2004), 포항(2009), 제주도(2009), 대구(2011), 수원(2015), 청주(2016), 울산(2022), 전라남도(2022) 미술관이 개관하는 등 국공립미술관 수가 빠르게 증가했다. 이렇게 전국 각 지역에 국공립미술관들이 들어서면서 지역 미술사 연구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문화예술 거점 구축을 위해 2017년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에 통과했다. 이후 ‘인천뮤지엄파크 시립미술관 콘텐츠 개발을 위한 학술용역’ (2019),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정책 연구’ (2022) 용역을 발주했고, 2023년 ‘인천시립미술관 운영방안 연구’와 ‘인천미술사 콘텐츠 발굴 연구’ 용역이 추진되었다.

*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회장

뿐만 아니라 인천시립미술관 건립/개관 사전홍보를 위해 올해 세 차례의 전문가 연구세미나를 열었으며, 10월 2일자로 ‘인천미술사 조사·연구’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인천시립미술관 개관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타 시도에 비해 시립미술관 건립이 다소 늦게 시작되었지만, 인천시민과 지역 미술계의 숙원을 담아 콘텐츠 개발과 운영방안 등 미술관 건립 준비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동안 인천시에서 발주한 용역을 보면 진행 순서가 바뀌었고, 비슷한 내용이 중복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기초연구가 이루어진 다음 그 성과를 바탕으로 콘텐츠 개발과 소장품 정책 연구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미술사의 뼈대를 이루는 작가와 작품에 대한 기초연구가 부재한 상태에서 콘텐츠 개발부터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인천을 대표하는 작가가 누구인지, 인천에서 활동하는 작가가 몇 명이고, 어떤 작품을 제작했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인천지역 미술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이 계속 나오는 것이다. 인천에 어떤 작가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인천미술의 정체성을 수립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근현대기 인천 미술가에 대한 전수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중 하나가 인천이 서울과 28km 거리에 위치한 수도권에 속해 있다는 점이 그러한 원인 중 하나다. 미술관 등 문화시설이 서울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인천지역 작가들의 다수가 같은 수도권에 있는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특히 인천은 이 지역 대학에 미술 관련 학과가 개설된 것이 1980년대부터로 타 시도에 비해 미술인을 배출할 교육기관이 다소 늦게 생긴 편이다. 이로 인해 인천에서 출생한 많은 작가들이 미술교육을 받기 위해 서울로 유학을 떠나 서울에서 작품 활동을 지속한 경우가 많다. 이는 인천 출신의 작가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6·25전쟁과 산업화를 겪으며 타 지역에서 이주해서 인천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도 다수 있지만, 이들을 인천미술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인천문화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일제강점기 인천의 전시공간 및 교육 관련 시설, 미술단체에 대해서는 인천문화재단에서 진행한 『인천미술사 콘텐츠 발굴 연구』(2023)에서 연구한 바 있다. 1990~2010년대까지 전시공간과 교육기관에 대한 조사는 『인천뮤지엄파크 시립미술관 콘텐츠 개발을 위한 학술용역』(2019) 보고서에 내용이 담겨있다. 이렇게 두 연구 용역을 통해 전시공간과 교육기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1950년부터 1980년대까지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1950년 이후 미술단체에 대한 연구도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인천문화사 정리를 위해서는 일제강점기는 물론 인천의 현대미술이 태동하는 전쟁 직후부터 1980년대까지 포괄하여 문화사 전반을 조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부설 근현대미술연구소는 인천의 미술가(작가, 이론가), 인천에 자리한 전시공간, 미술단체 및 교육기관, 인천 미술계에서 발생한 사건들에 관한 자료와 작품을 조사·수집하여 인천미술사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동시대 인천미술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창출함으로써 전시기획, 교육 콘텐츠 개발 등 인천시립미술관 개관 준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인천광역시와 ‘인천미술사 조사·연구’ 학술연구용역을 체결했다. 이 글은 이제 막 시작한 ‘인천미술사 조사·연구’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과 연구 방법, 기대효과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즉 ‘인천미술사 조사·연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소개하는 글이라 할 수 있다.

‘인천미술사 조사·연구’의 수행업체로 선정된 근현대미술연구소는 1994년 설립되어 한국근현대미술 관련 학문 연구, 조사, 발표 및 보급을 도모하여 한국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해온 전문 학술단체인 (사)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에서 학술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2022년 6월 창설한 학회 부설 연구소이다. 근현대미술연구소는 그동안 (사)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에서 진행해온 학술사업의 노하우와 전문 연구인력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각종 사업 참여를 통해 익힌 학술연구 용역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인천미술사 조사·연구’ 용역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II. ‘인천미술사 조사·연구’ 학술연구 용역의 개요

1. 연구 범위

연구 범위는 발주처인 인천광역시가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 1) 공간적 범위 : 인천시 전역 (시기별 인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확장 가능)

2) 시간적 및 내용적 범위

- ① 1단계 : 1880~1980년 인천 출생 및 활동 등 작가, 이론가 조사·연구
 - 인천 미술인명사1 : 1880~1949년 출생, 인천을 연고로 활동한 미술가 및 미술이론가
 - 인천 미술인명사2 : 1950~1959년 출생, 인천을 연고로 활동한 미술가 및 미술이론가
 - 작가별 파일 : 1960~1980년 출생, 인천을 연고로 활동하는 미술가 및 미술이론가
- ② 2단계 : 1883년 인천 개항 이후 1999년까지 미술문화사 관련 전반
- ③ 3단계 : 1883년부터 2000년대까지 변화해 온 인천미술의 형성과정, 미술 담론

2. 연구 세부 내용

‘인천미술사 조사·연구’ 사업은 2024년 10월 2일부터 2027년 10월 1일까지 36개월 동안 3단계로 진행할 예정이다. 1단계 사업은 인천미술인명사(1880~1959) 해제문 집필 및 작가 파일(1960~1980)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2단계는 인천미술문화사(1883~1999)를 분석하여 집필하고, 3단계는 근현대기 인천미술사 총론을 집필할 예정이다. 각 단계별로 추진할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단계 : 1880~1980년 인천 출생 및 활동 등 작가·이론가 조사연구

1단계에는 인천미술가들을 집대성하는 미술인명사를 20개월 동안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 대상은 개항으로 근대의 문을 여는 1880년대부터 현대미술의 정착기에 해당하는 1959년까지 인천에서 출생했거나 인천을 연고로 활동하는 미술가로, 연구 대상을 선정한 후 작가의 생애와 주요 활동, 작품세계를 해제한 개요와 연보를 작성할 예정이다.

1960년 이후부터 1980년까지 출생한 미술가는 작가정보(출생연도, 출생지, 학력, 경력(수상 이력 포함), 전시이력(개인전, 단체전), 작품비평문과 대표작 30여 점을 목록화한 작가파일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1960년 이후 출생한 작가는 해제문 대신 개별 작가 파일을 작성하는 것은 현재 미술계에서 왕성하게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세대로,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리할 경우 생기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2) 2단계 : 인천미술문화사(1883~1999) 분석 및 집필

2단계 사업은 10개월간 진행되는데, 우선 1단계 사업을 진행하면서 확보한 인천미술가들의 정보 및 작품세계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1883년부터 1999년까지 인천문화사를 분석할 것이다. 이후 자료를 추가 조사하여 항목별·연도별로 목록화하고 ①인천에서

개최된 전시 및 전시공간에 대한 분석과 해제, ②인천을 기반으로 한 미술단체에 대한 분석과 해제, ③인천의 미술 교육기관 분석과 해제, ④인천국제여성비엔날레 역사 및 인천에서 발생한 미술 사건 분석 및 해제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3) 3단계 : 총론(1883~2000년대) 집필

인천은 1883년 개항된 이후부터 2000년대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총론에서는 인천의 역사적, 지리적 환경을 분석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인천미술의 특성을 고찰한다. 동시에 1, 2단계에서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항 이후부터 2000년대까지 인천미술의 전개 과정과 흐름을 시기별로 분석하여 인천미술의 맥락을 정리할 것이다. 또한 동시대 인천미술의 현상을 분석하여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1, 2단계 과정에서 누락된 내용을 추가, 보완하여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할 계획이다.

Ⅲ. ‘인천미술사 조사·연구’의 수행 방법

1. 인천 미술인명사(1880~1980) 수행 방법

1단계 사업으로 미술인명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미술가야말로 미술창작의 주체로, 그 자체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인명사 연구로 파생되는 인천미술 관련 활동, 사건, 교류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미술인명사는 ‘인천미술사 조사·연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작업이다. 따라서 전체 용역기간 36개월 중 20개월을 미술인명사에 할애할 정도로 큰 비중을 두고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방법은 연구 대상을 선정한 후, 개별 작가에 대한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작가 개요와 연보 작성, 또는 작가 파일을 구축 순으로 진행한다. 구체적인 연구 수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 선정

미술인명사 진행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힘든 작업은 어떤 작가를 인천미술가로 선정하느냐이다. 연구 대상 선정 기준은 인천 출생은 물론, 성장·거주·근무·학교 등 인천에 연고가 있는 작가이다. 따라서 출향(出鄕) 작가는 물론 월북(越北) 작가도 포함된다. 타 지역 출신 작가의 경우 최소 10년 이상 거주, 학교 등 근무지가 인천인 경우는 인천미술사에 미친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연구 대상 선정을 위해서 1880년부터 1980년까지 인천에서 출생했거나 인천을 연고로 활동한 미술가와 미술이론가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여 ①1880년부터 1949년까지 출생한 인천미술가, ②1950년대생 인천미술가, ③1960년부터 1980년까지 출생한 인천미술가로 구분한 1차 작가 목록을 작성한다. 이 목록을 바탕으로 발주기관을 비롯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 회의를 개최하여 연구 대상을 선정한다.

2) 자료조사와 수집

연구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면 가장 먼저 해당 작가나 유족한테 공문을 발송하여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저작권 허락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동의를 요청한다. 이후 자료조사를 하는데, 작고 작가는 문헌자료를 우선 검토한 후 자료가 부족하면 자료를 소장한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생존작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예비 조사를 실시한 후, 작가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이메일이나 전화, 또는 대면 인터뷰를 통해 작가의 전시 도록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다.

3) 작가 개요 및 연보 작성 방법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1880년부터 1959년까지 출생한 인천미술가에 대한 해제문을 작성한다. 해제문은 작가 정보(생애, 학력, 가족관계 등)와 연보(전시, 수상 경력 및 활동 내역), 작품 이미지 1~2점으로 이루어진다. 작가 개요에는 생애와 작품세계 전반, 시기별 작품세계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여 서술한다. 작가 해제문은 미술사 연구물로서 전문적인 성격을 갖게끔 하되 최대한 쉽고 간결한 문체로 작성하며, 해제문 작성시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여 연구원 간 상이한 문체, 용어와 인명에 통일을 기한다. 완성된 해제문은 책임연구원의 감수하에 연구원들이 교차 교정·교열하여 내용의 완성도를 높인다. 마지막으로 집필한 원고에 대표 작품 이미지를 삽입하여 책자 발간이 가능하도록 편집한다.

4) 1960~1980년 출생한 작가 정보 및 작품이미지 목록화

1960~1980년 출생한 인천미술가는 해제문 대신 작가의 출생지, 출생연도, 학력, 경력(수상경력 포함) 등 기본 정보와 작품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비평문을 작가별 엑셀 파일에 입력한다. 한 작가당 대표작 30여 점의 작품 이미지를 수집하여 작품 정보와 함께 엑셀 파일에 목록화하되, 작가에게 저작권 허락서를 양도받아 해당 저작물 이용에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한다.

2. 인천 문화사(1883~1999) 수행 방법

인천문화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의 미술문화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온 미술단체와 경기도 및 전국 단위의 유관기관과의 긴밀하고 유연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자문을 구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인천광역시 소재 미술대학 및 사립 미술관, 대안공간 등과 다각적인 협조체계 구축하여 인천미술의 다양한 면모를 파악하고자 한다. 인천문화사의 구체적인 수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인천 미술문화사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인천 미술문화사 연구를 위해 1단계 사업으로 진행한 ‘인천미술인명사’와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인천의 전시공간, 미술단체, 교육기관, 미술 사건에 대한 내용을 추출한다. 이후 김달진미술연구소에서 발간한 『한국미술전시자료집』 I·II·III·IV를 비롯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간행한 『문예연감』,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1920년~1999년) 등 온라인 포털사이트와 인천·경기권에서 간행된 신문, 그리고 전시 도록 및 문헌 자료를 통해 인천미술에 대한 자료를 조사, 수집할 예정이다.

2) 인천 문화사 관련 기초자료 목록과 해제문 작성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인천에서 개최된 전시회, 전시공간, 미술단체, 미술(교육)기관, 미술 관련 사건 등을 목록화한 후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 회의를 개최하여 해제문 작성 방향을 논의한다. 이후 각 항목별로 작성한 목록을 분석하고, 해제문을 작성한다. 해제문 작성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인천에서 개최된 미술전시의 목록화 및 분석

인천에서 개최된 전시회를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구분하여 목록화하고, 연대별로 그 추이를 분석한다. 아울러 구군 단위로 목록화하여 행정구역별로 전시회의 빈도수를 분석하여 특징을 파악한다.

② 인천의 미술 전시공간 목록 및 해제문 작성

인천 소재 전시공간을 시기별, 행정구역별로 목록화하여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인천의 전시공간 중 대표적인 전시공간의 위치와 이미지를 확보하여 해제문을 작성한다. 해제문에는 전시공간명, 위치, 설립 계기, 역할 등을 서술한 후 전시이력과 이미지를 삽입한다.

③ 인천의 미술단체 목록 및 해제문 작성

미술단체는 창립연도순으로 미술단체명, 창립 전시명 등을 목록화하고, 연대별로 목록을 작성하여 미술단체의 변화 양상과 특징을 분석한다. 해제문에는 미술단체의 결성 배경, 회장 및 구성원 명단과 구성원의 변화 과정, 특징을 서술하고 미술단체의 전시 이력과 리플릿이나 도록, 전시 사진 등 이미지를 확보하여 수록한다.

④ 인천 미술(교육)기관 목록화 및 해제문 작성

인천 소재 미술대학, 예술고등학교 등 미술교육 기관과 교육자 명단을 목록화하여 인천미술 교육환경을 분석한다. 인천미술(교육)기관 해제문에는 기관의 설립연도, 위치, 구성원, 특징을 서술하고 연혁과 기관의 건물이나 관련 이미지를 함께 수록한다.

⑤ 인천미술 관련 사건 목록 및 해제문 작성

3) 문화사 관련 해제문의 원고 감수 및 교정, 편집

각 항목별로 작성한 해제문을 취합한 후 교정 및 감수를 실시한다. 해제문이 완료되면 각종 표와 그래프, 시각이미지를 추가하고, 참고문헌을 정리하여 최종 결과물을 산출한다.

3. 총론(1883~2000년대) 집필 방법

1) 선행 단계 연구 결과물 분석 및 집필 방향 설정

1단계에서 진행한 미술인명사 자료와 2단계 미술문화사 자료를 분석·검토하여, 추가 조사할 대상을 선정한다. 분석한 내용과 추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문위원 회의를 개최하여 인천미술 흐름과 동시대 인천미술의 담론 창출을 위한 연구 방향을 설정한다.

2) 인천미술의 특징과 현황 분석을 통한 담론 창출

대한민국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 인천의 역사와 문화의 특수성을 분석해 동시대 인천미술 관련 담론의 핵심 주제를 파악한다.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담론 창출을 위한 주제가 보다 구체화 되겠지만, 현재 예상하는 탐구 주제는 다음과 같다.

○ 인천미술의 국제성 : 인천은 근대 이후 개항과 이민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증거하는 도시이다. 이는 인천미술이 대한민국 국제화 과정의 대표적 사례로서 해석될 가능성이 충분함을 시사한다.

○ 관광 자원과 전시의 결합 : 구한말 이후 세계와의 소통 출입구로서 중대한 역할을 담당했던 인천은 현재도 영종도에 인천공항이 위치하는 등 국제화의 첨단기지로 기능하고 있다. 이 같은 특수성으로 인천 미술계는 오늘날 관광 자원과 전시의 결합이라는 문화의 새로운 양상을 창조하고 있다.

○ 한국의 대표적인 미술이론가의 출생, 활동지 : 인천은 고유섭, 이정성, 성완경, 김인환 등 한국근현대미술사를 주도한 유명 미술평론가, 미술사가들이 출생하거나 활동한 도시로, 한국 미술사에 이들의 활약이 인천이라는 도시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살펴봄으로써 인천미술사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를 마련한다.

○ 민중미술의 선도시 : 인천은 근대 이래 대한민국의 공업화, 산업화 과정을 선도한 도시다. 그 결과 인천의 노동 현장에서 여러 미술단체가 탄생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이는 사회 비판적 참여미술의 사례로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있다.

○ 새로운 장르 예술의 대표적인 생산지 : 인천은 송도국제도시 건설 등을 통해 최첨단 기술이 일상에서 가장 빠르게 구현되는 미래적 도시 공간을 지향해왔다. 따라서 최첨단 기술과 미술이 융합된 새로운 장르 예술의 대표적 생산지로서 가능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IV. ‘인천미술사 조사·연구’의 기대효과

1) 인천미술사 기초자료 구축

대부분의 자료들이 작가 개인이나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어 일목요연하게 살펴보기 어려운 인천 미술인명사 및 문화사 관련 자료들을 미술사 연구자들이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함으로써 인천미술사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2) 전시기획 및 교육 자료로 활용

이 연구를 통해 인천미술사 기초자료를 구축함은 물론, 인천의 역사와 문화의 특수성을 분석해 동시대 인천미술의 담론을 창출함으로써 향후 인천시립미술관의 전시기획 및 출판, 교육, 세미나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시대 인천미술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다양한 연구 주제를 파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3) 인천시립미술관의 소장품 수집의 기초자료로 활용

인천을 연고로 활동하는 미술가 중 미술사적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작가와 작품을 선별하고, 각 장르별로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을 엄선하여 소장품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작가에 대한 정보 및 작품의 현황 파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수집·정리한 작가 정보 및 작품 목록은 인천시립미술관의 소장품 수집 전략을 수립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4) 인천시립미술관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

인천에서 태어났으나 전문적인 미술교육을 받거나 작가 활동을 위해 서울 등 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어 인천 출신인지조차 파악되지 않았던 작가는 물론, 인천을 연고로 활동하는(했던) 미술인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인천미술의 맥락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근현대기 인천문화사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천미술 특유의 미학적 특징을 발견함으로써 인천시립미술관의 정체성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5) 인천미술사의 연구 지평 확대

1단계 인천미술인명사, 2단계 문화사, 3단계 총론(인천미술 흐름과 동시대 인천미술에 대한 담론, 연표 등)으로 진행되는 사업 결과물을 총서로 발간함으로써 인천미술 연구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새로운 의제 발굴의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인천미술사를 보다 심화,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6) 한국미술사 속에 인천미술의 위상 정립

‘인천미술사 조사·연구’의 성과물을 전국의 국공립미술관 및 유관 기관들과 전시 및 연구를 위한 교류에 이 자료들을 활용함으로써 인천미술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한국미술사 속에 인천미술의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 근현대미술사의 풍부한 자원을 만드는 발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인천미술사 조사·연구의 방향’에 대한 토론문

조 경 재*

이 연구는 인천 미술가와 미술단체, 교육기관 등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인천미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연구는 2024년부터 36개월간 3단계로 진행되며, 인천미술사 연구와 시립미술관 개관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연구는 인천시립미술관 개관뿐만 아니라 한국미술사 연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연구가 타 지역 미술사 연구의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다른 지역의 미술사 연구에 미칠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미술사 연구 3단계의 목표와 세부 진행 계획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미술인명사, 문화사, 총론 집필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방법론과 자료 수집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특히 기록에는 없는 과거에 있었던 문화공간이 현재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록에서는 찾을 수 없는 자료 수집은 어떠한 방식으로 수집되는지 방법론이 궁금합니다.

수도권 내 미술가 활동과 인천미술사 간의 관계에 관한 서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가를 지역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 위치로 인해 인천 출신 작가들이 주로 서울에서 활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시대별로 구별하여 서울과 인천과의 관계성에 관한 서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가는 사회적 요소에 따라 활동 범위가 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대

* 프로젝트 스페이스 코스모스 대표

로 보면 인천아트플랫폼의 전후, 또는 인천문화재단의 기금사업 전후에 따라 예술가의 활동 변화가 이루어지듯이 시대별로 인천에서 활동하게 된 계기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가 개인의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제도)도 같이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과정에서 기초연구 없이 콘텐츠 개발이 먼저 진행된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기초연구가 생략된 상태에서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진 원인은 무엇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글로벌시대 지역미술관의 건립/개관 사례와 변화 양상 - 정체성 구축을 위한 전략 -

기혜경*

미술관의 정의?

- 뮤지엄의 정체성은 그 소장품에서 출발
- 소장품 및 소장자료는 미술관의 존재기반이며, 정체성을 드러내는 바로미터
- 뮤지엄의 중요 전문직 : 큐레이터(curator)의 어원 : 보살핀다, 관리한다는 'cura-'에서 유래
- 뮤지엄의 역사적 추이
 - 18세기 : 소수의 특권층에게 한정
 - 19세기 : 국민을 위한 공간
 - 20세기 : 미술품을 통한 교육, 국가이데올로기의 구현 등
- 미술관의 역사: 소장품의 수집, 보관 및 관리업무에서 공중과 공유하는 전시업무로, 20세기 후반 들어서는 교육업무로, 1990년대 후반에 이르면 해석으로, 그리고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는 미술관의 활동과 관련된 정보 공유와 담론창출로 그 영역을 넓혀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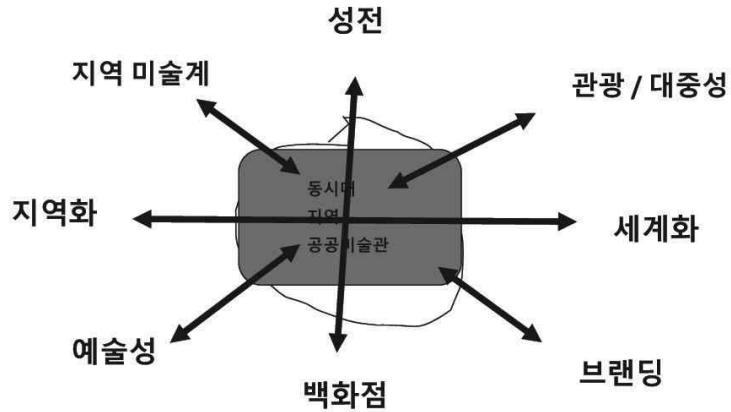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예술기획과 및 일반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

미술관의 정의?

- 2022년 프라하 세계 박물관대회 (ICOM)에서 채택된 Museum 정의
- 미술관/박물관은 유무형 유산을 연구, 수집, 보존, 해석, 전시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비영리, 영구기관이다. 미술관/박물관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어 이용하기 쉽고 포용적이어서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을 촉진한다. 미술관/박물관은 공동체의 참여로 윤리적,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소통하며, 교육, 향유, 성찰, 지식, 공유를 위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
- “A museum is a not-for-profit, permanent institution in the service of society that researches, collects, conserves, interprets and exhibits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Open to the public, accessible and inclusive, museums foster diversity and sustainability. They operate and communicate ethically, professionally and with the participation of communities, offering varied experiences for education, enjoyment, reflection and knowledge sharing.”

미술관의 정의? 문화를 아카이빙하는 것은 그 문화를 재생산하는 것에 동참함을 의미한다. (Terry Smi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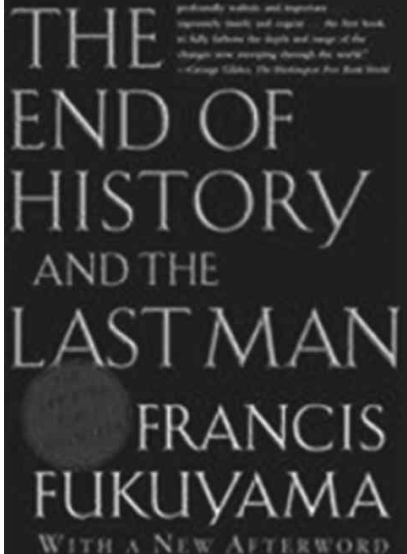
- 미술관은 단순히 과거의 개념이었던 소장품의 보존/관리, 전시, 교육, 정보공유, 담론창출이라는 미술관의 고유 활동에만 머물지 않고, 그것이 위치한 지정학적, 역사적,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축을 매개함은 물론 미래의 문화를 재생산하는 역할
- 미술관은 미술관이 위치한 해당 지역의 문화 보존과 재창출에 중요한 역할
- 미술관은 공동체의 역사와 문화, 환경은 물론 해당 사회가 지향하는 미래비전을 담아내는 것
- 인천시립미술관 전략의 전제 :
 - ✓ 인천의 역사와, 문화, 환경 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인천이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지정학적 위치를 감안.
 - ✓ 신자유주의시대 지역기반의 공공미술관으로서 글로벌 미술계의 변화 및 국내 미술 생태계의 변화,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역 미술관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들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



동시대로의 진입

- 베를린 장벽 붕괴 (1989)와 구 소련연방 해체 (1991)
- 이데올로기 시대의 양대 축이었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재편되어, 글로벌 자본주의와 신자본주의 체제로
- 냉전의 종식, 역사적 코뮤니즘의 종말, 독립적 좌파정치의 와해,
- 자본의 신자본주의적 세계화의 결정적 승리
- > 프랜시스 후쿠야마 : 역사의 종언





동시대로의 진입

- 프란시스 후쿠야마: 역사의 종언
 - 2차세계 대전이후 냉전체제 속에서 이데올로기의 대치시대
 - 공산주의가 패배하고 자유주의가 승리함으로써 냉전 종식
 - 미국 등 서방 자유민주 진영의 주도로 시장경제가 세계에 퍼질 것이라는 낙관론.
- www 창시 (1989)
 - by Tim Berners-Lee
 - 웹의 창안과 첨단기술의 발달은 곧 인터넷, 휴대전화, 각종 SNS를 통해 온라인 네트워크와 정보시스템 강화
 - 글로벌 자본주의와 직접 민주주의의 확산, 새로운 인간관계, 교환체계가 가능

동시대로의 진입

- 천안문 사건 (1989)
 - 2차대전 이후 2, 3세계 국가의 독재체제에 대한 항거
 - 권위주의에 맞서는 민중의 항거가 1980년대를 거치며 세계 민중들로 하여금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각성을 유도 -> 평등의 가치에 대한 신념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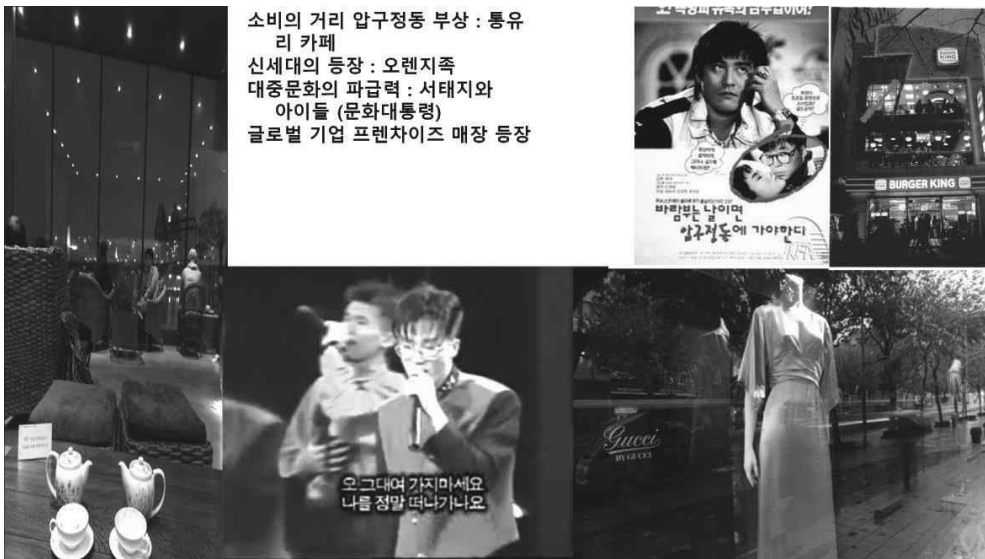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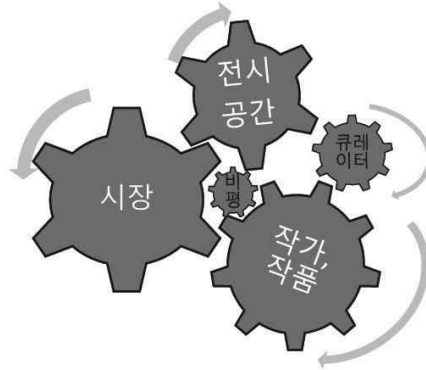


- 박종철 고문치사 (1987년 1월)
- 1987년 6월 항쟁 (6월 9일 이한열)
- 1987년 6. 29. 민주화 선언 (대통령 직선제, 평화적인 정권교체)
- 이한열 장례식 (1987. 7. 9.)



3당 합당(1990년)과 우루과이 라운드 (1993년 타결, 1995년 발효)





• 미술생태계의 구성 요소

- 작가 : 작품
- 공간 : 신생공간 / 대안공간 / 미술관, 비엔날레
- 큐레이터 : 기관 큐레이터 / 독립 큐레이터
- 시장 : 화랑 / 옥션 / 콜렉터
- 비평 : 평론가 / 기자
- 기타 : 레지던시 / 수상제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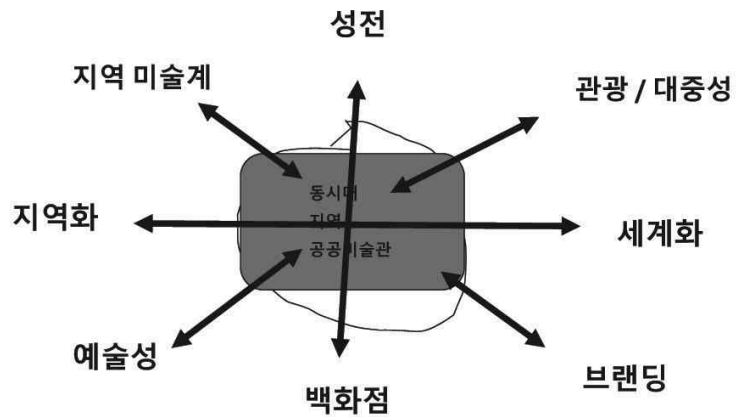
* 21세기는 마켓이 주도 : 콜렉터의 시대

미술관의 정체성 수립

- 지방자치제도의 도입: 문화의 자긍심을 높이며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지역기반 공공미술관설립
- 공립미술관 설립 1차 러시 : 광주시립(1992), 서울시립(1995), 부산시립(1998), 대전시립(1998)을 필두로, 박수근미술관(2003), 이중섭미술관(2003), 수원시립(2004), 경남도립(2004), 마산시립문신미술관(2004), 전북도립(2006), 경기도미술관(2006), 대구미술관(2011)
- 부산현대미술관(2018), 전남도립(2021), 울산시립(2022), 강릉 서울미술관(2024)
- 준비중인 미술관 : 김해 김영원 조각미술관, 경북도립미술관, 인천시립미술관, 여주시립미술관(26년 개관예정), 양산시립미술관, 춘천시립미술관 등등 (2차 러시)
- 1차 러시는 지방자치제도의 도입 / 2차 러시는 미술이 도시 브랜드 가치재고, 도시 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대표적인 예 : 빌바오 효과)



- 빌바오 구겐하임 전경
- 1997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개관, 인구 40만의 도시 빌바오에 2007년 기준 연간 100만명 이상의 방문객 및 도시 경제에 가져온 파생효과는 2조 1000억원의 경제효과) 전경
-



미술관의 정체성 수립

- 미술관은 지역 미술계를 아우르고, 지역민의 예술적 감수성 고양 뿐 아니라 도시의 중요한 관광자원이자, 문화 브랜딩의 플랫폼으로 작동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해당 미술관의 브랜딩 가치가 무엇인지? 정체성을 무엇으로 구축하는가? (중요)
- 지역미술사 연구 기반 미비로 해당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낼 만한 주제어 및 키워드를 찾는 것 쉽지 않은 당면 현실 (디아스포라, 이주, 등의 키워드 : 대표 작가는?)
- 미술관에 대한 각 주체들의 다양한 요구 + 지역 미술관이 처한 열악한 여건 + 지역 미술사 연구의 비활성화 = 지역의 공공미술관들이 해당 지역 미술사를 기술해 내는 일을 뒤처지게 하고 있는 것 (90년대 설립된 광주, 서울, 부산, 대전도 다르지 않음)
- 이러한 이유로 지역미술관의 정체성 형성은 쉽지 않은 상황

미술관의 역할

- 토니 베넷 (Tony Bennet): 전시 복합체로서(The Exhibitionary Complex)의 미술관
- 디오라마나 파노라마, 엑스포 및 박람회 등과 같은 대중 스펙타클과의 관계 속에서 뮤지엄의 탄생을 살피며, 근대이후 전시복합체로서의 미술관/박물관은 공공 디스플레이를 위해 물건이나 육체를 지휘하고 배열할 수 있는 힘에 대한 실물 교육을 행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권력관계를 인지하게하고, 더 나아가 배움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주체가 되게 함으로써 국가 권력의 구동에 힘을 더해 왔다고 주장
- ✓ 국가라는 공동체를 규합하기 위해 국가권력과 보조를 맞추는 독보적인 문화기관
- ✓ 국가 내에서 동질한 그룹의 집단적 소속감을 부각, 공통의 문화를 가진 국민국가를 강조하는 기제
- ✓ 타 국가와는 변별되는 고유의 문화 역사를 강조하며, 과거부터 연속적으로 이어진 집합체로서의 국가를 시각적으로 가시화하는 기제
- ✓ 박물관/미술관의 역사는 바로 국가 정체성 확립의 역사와 불가분의 관계 -> 지방자치로



세계화와 지역화의 사이에서

- 신자유주의 시대 글로벌 기업들의 적극적 행보 : 세계를 하나로 묶어내며 전통적인 국민국가체제 보다는 비즈니스 중심의 지역단위 및 도시의 역할이 중시
- 세계화를 전면에 장착한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의 보편적 세계가 지역이 갖는 지역적 특수성으로서의 '로컬리티 (Locality)'를 압도하고 지배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로 미술관의 역할 변화
- 글로벌 시대의 흐려지는 경계의 문제, 지역의 정체성을 유지, 세계와 교류할 수 있는가의 문제 대두
- 미술관/박물관을 통해 정체성을 구현하던 집단이 국가에서 이제는 좀더 적은 단위의 도시를 기반으로 변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세계와 공생의 길을 모색하며 지역성을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글로벌 시대의 로컬의 전략 즉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미술관의 문화논리로 제시
- 동시대 미술관은 세계화와 지역화라는 두 개의 축이 상호 긴장 관계를 이루며 상보적 역할을 수행하는 상황 속에서 글로벌시대에 로컬의 문화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

백화점과 성전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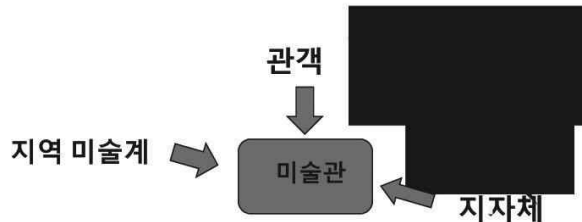
- 매체와 기술의 발달, 사회의 다변화
- 동시대 사회 속에서 미술관은 수많은 문화의 장 가운데 하나
- 매스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확산이후 미술관/박물관의 경쟁상대는 더 이상 동종의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아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영화, 오락, 게임, 테마파크 등
- 미술관은 기존의 소장, 전시, 교육, 정보 및 해석이 중시되던 공간에서 소장, 전시, 이벤트, 오락, 놀이 등이 가능한 공간으로 변환
- 과거 미술관이 그 소장품의 진열방식을 국제 엑스포 등에서 찾았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미술관은 상품 광고와 미디어를 통해 넘쳐나는 스펙타클의 가시화로부터 그 관객확보를 위한 전략을 습득하여 활용
- 동시대 미술계에서 건축, 조각, 영상, 미디어, 설치, 테크놀로지가 스펙타클의 전략으로 주로 활용

도시 브랜딩과 지역미술계

- ‘빌바오 효과나 나오시마 효과’는 아니더라도 관광에 도움, 혹은 도시 브랜딩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지자체 단위의 바람 (일반 대중이 보고싶어하는 것 vs. 보여주어야 하는 것 : 빌바오의 경우, 세계적 유명 미술 + 스펙터클 vs. 빌바오 지역미술계) : 인천 지역미술계와 상생의 방안 마련 절실
- 미술관/박물관은 지자체와 해당 지역에 긍정적인 브랜딩 고양 효과를 가져오며, 그것이 외지인의 방문 증대로, 그리고 그러한 방문객 수가 임계치를 넘기게 되면 빌바오나 나오시마 효과로 가시화
- 그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바로미터는 개관과 더불어 처음 3년
- 개관과 더불어 이목이 집중되는 시기이며, 동시에 앞서 살펴본 미술관을 향한 모든 기대가 일시에 투영 되기 때문
- 어떻게 자리매김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하고, 다양한 유사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대중성과 순수성 (관광 vs. 예술성)

- 미술관의 건립과 운영을 통해 또 다른 ‘빌바오 효과나 나오시마 효과’에 미치지 못하는 하더라도 관광객 증대를 통해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길 바라거나 적어도 해당 지역의 도시 브랜딩에 도움이 되길 원하는 지자체, 지역공동체 단위의 기대
- 미술관을 통해 보고 싶은 작품을 보며 문화향유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해당 관객의 염원
- 해당 지역을 근거로 활동하는 작가분들의 지역미술관에 대한 기대



관객의 염원

- 관객의 염원: 명품 컬렉션 (이건희 컬렉션/컬렉션)과 해외 유명 작가전
- **이건희 컬렉션**: 지방순회전시 개최되는 곳 마다 관객이 5배 이상 증가, 전국 투어족 등장
 - (1) 우리나라 미술사를 대표하는 작품 대거 포함
 - (2) 지역 미술관의 항시적 민원 : 이중섭, 박수근, 김환기, 유영국 등 근대기 대가들의 명품 전시 유치
- 해외 유명 작가의 전시나 유명 컬렉션 : 서울시립미술관이 주최한 《데이비드 호크니》전 및 《에드워드 호퍼: 길 위에서》
- 동시대 미술계의 평면, 입체, 영상, 설치, 퍼포먼스 등과 같은 다양한 미술의 스펙트럼과 비교할 때, 아직은 관객은 여전히 평면, 회화, 그리고 마스터 피스에 집중
- 미술관은 이러한 간극을 좁혀나가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미술관은 어렵다는 선입관을 불식시켜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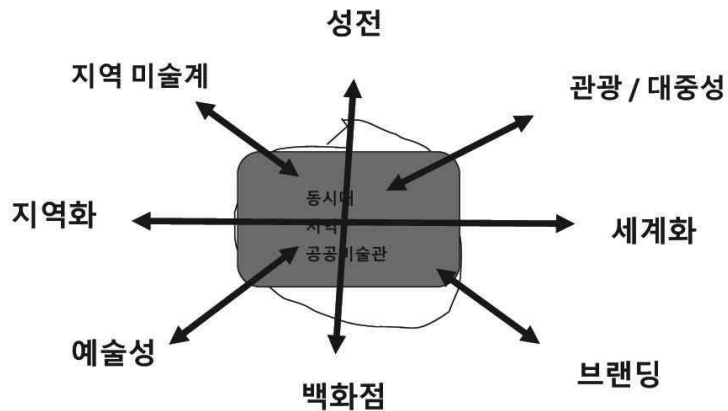


미술계와의 협업

- 작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미술관은 정지된 공간으로 변화될 것이기에 동시대 미술관의 존립 근거에 작가의 존재는 필수불가결
- 미술관이 소장품과 전시라는 시스템 속에 작가들과 전체 미술계와의 관계를 어떻게 균형 맞추는 가
- 소장품에 한정하여 살필 때, 미술관이 지역성을 유지하면서 보편성을 획득하였는가의 문제는 해당 미술관의 소장품을 가지고 한국미술사, 혹은 전체 미술사의 문맥 속에서 지역미술사를 기술하며, 해당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지
- 보편성과 특수성, 초지역성과 지역성의 관계 속에서 미술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가능한 비율로 소장품과 전시, 프로그램 구성

동시대 지역미술관의 역할

- ✓ 글로벌한 세계 속에서 지역의 정체성을 구현
- ✓ 해당 지역 브랜딩과 마케팅에 일조
- ✓ 세계와 교류
- ✓ 관객의 니즈에 맞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부터 잠재 관객을 미술관으로 유도
- ✓ 지역 기반의 작가들의 활동 플랫폼
- ✓ 독자적이면서도 고유한 콘텐츠 담보
- ✓ 고유한 콘텐츠와 특수성을 가꾸고 전파하는 동시에 세계적 보편성 속에 그것을 위치시켜야
- ✓ 세계화 시대의 지역 미술관으로서 '특수성과 보편성/지역성과 초지역성 사이'에서 균형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_ 전략 구축

• 인천의 특징 및 미술

- 고유섭, 이경성, 김인환, 성완경 등 걸출한 이론가들의 도시
- 개항장이자 항구도시, 38선 인접지역 : 교류, 이주, 이산의 지역
- 공단지역으로 노동미술 우세
- 국제 인천 여성 비엔날레 개최
- 비교적 미술대학이 늦게 설립 (수도권 인접 등으로 80년대 이후 미술대학, 지역작가라는 경계 모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_ 전략 구축

• 인천시립미술관의 지정학적 위치 :

- 수도권 권역내의 미술관 (서울 소재의 대형 미술관의 권역과 겹침)
 - 인천시의 독자적 미술사 발굴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 부산 (형상), 대구 (실험), 광주 (한국화), 공주 (야투), 창원 (조각) 등
 - 국내 그 어디에도 없는 한지봉 아래 박물관 + 미술관
: Museum의 탄생 및 전파 과정 속에서 일본과 한국 만이 미술관과 박물관을 구분
: 하나의 권역을 아우르는 미술관, 박물관이 연대, 협업 체계를 갖춘다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인천만의 독자적인 뮤지엄 콤플렉스가 가능
- (1) 인천의 역사를 살필 수 있는 소장품 전시를 미술관과 박물관이 협력하여 기획
 - (2) 인천의 특성을 살필 수 있는 키워드를 통해 전통에서 현대까지를 조망할 수 있는 전시
 - (3) 작가로 하여금 박물관에 스며들기, 박물관의 유물이 미술관으로 넘어오기 등



-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시대실 (Afrofuturist period Room), 2021
- 19세기 세리믹과 Jean_Louis 가 커미션 작업한 가운
- 아프로 퓨처리즘을 근간으로 전세계의 디아스포라의 경험을 바탕으로 두고 세네칼 이주민들의 사라진 마을을 통해 미래의 해방을 탐색 (과거와 미래, 미술적 사실주의, 사변소설, 공상과학적 요소)를 통해 대안성 모색



- 그레이슨 페리, 무명 공예가의 무덤 (The Tomb of the Unknown Craftsman, British Museum, 2011)
- The Rosetta Vase (yellow) & The Frivolous Now, both 2011



- Grayson Perry, our mother, 2009, rusted cast iron
- 전시의 주제 중 하나인 Pilgrimage를 풀기 위한 작품



- Metropolitan Museum : 과거와 현대 미술의 대화를 주제로 한 전시 새로 확장한 Met Breuer에서 자주 개최
: Unfinished: Thoughts Left Visible (2016) :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작업을 막라하며 미완성의 작업을 전시하며 '완성'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재고하게 함 (티치아노 & 싸이 톰블리)



- 로마 카피톨리니 뮤지엄, Jenny Saville : A Revolutionary Artist (2021)

미술관의 정체성 구축

- 첫 개관 후 3년, 그중 특히 첫 개관 후 1년차 (책임자 선임의 절실함 : 건축 디테일, 지역 미술사 연구, 아카이브, 개관 준비, 정체성 빌드업 등)
- 설정된 미술관의 키워드를 위한 전략 수립
- ✓ 목표와 방법으로 나누어 설정
- ✓ 어떻게 정체성을 빌드업 할 것인지 소장품, 전시, 기타 프로그램의 체계화 및 연동성
- 결정된 사항은 소장품, 전시, 교육, 홍보 등과 같은 미술관의 모든 활동과 연동
-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미술관의 정체성 구현을 위해 중장기적 + 지속적인 조사, 연구, 소장, 전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된 방향성과 그것을 향한 항구적인 지원시스템 마련
-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2028년 개관을 위해 건축, 콘텐츠, 소장품 등을 총괄할 책임있는 관계자 선임이 급선무

‘글로벌시대 지역미술관의 건립/개관 사례와 변화 양상’에 대한 토론문

차기울*

기혜경 선생님께서 발제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저의 의견을 첨부하여 기술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발제하신 미술관 관련 일반적 내용과 지역 관련 내용에 대해 공감합니다.
저는 인천시립미술관의 정체성 구축과 미술관 개관 전 사전 준비에 대해 의견을 첨부하여 기술하고 몇 개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미술관은 수집, 전시, 교육, 보존의 일반적인 형식을 넘어 다양한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이트 큐브와 오픈 에어를 넘나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세계사적 관점에서 글로벌 문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국가적으로도 지역과 중심이 해체되는 상황 속에서 로컬의 가치와 글로벌의 보편화된 가치가 충돌하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인천이 어떤 방향성을 지닌 미술관을 운영해야 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천은 근대라는 새로운 장을 연 개항의 현장이며, ‘신문물’이 신기하고 편리함으로 동시에 폭력적이고 혼란스럽게 유입된 장소입니다. 또한, 근대의 복고적 기억을 극복하고 오늘날 인천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장소입니다.

미술관의 소장품은 그 미술관의 정체성과 철학을 보여줍니다. 미술관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문제는 지역 역사를 기반으로 한 소장품 수집 방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지

* 인천대학교 조형예술학부 교수

역성에 대한 이해, 형평성과 객관성 확보, 구입과 기증의 명확한 기준 마련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축을 매개로 공동체가 지향하는 미래 비전과 글로벌 미술계 및 국내 미술 생태계의 변화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인천의 역사와 현재의 모습 속에서 시립미술관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무엇 일까요?

저는 인천의 사회, 문화, 환경적 특수성을 강조할 수 있는 ‘평화 도시’와 ‘생태 도시’라는 개념을 제안합니다. 남북 분단 현실과 대치의 현장에 가까운 지리적 특성은 인천이 평화 도시 개념을 실현할 유력한 후보임을 보여줍니다. 평화 도시를 상위 개념으로 설정하면, 이데올로기 전쟁과 산업화가 남긴 상흔을 체화한 집단으로서 인천의 디아스포라를 다룰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천은 세계 4대 갯벌을 보유한 대도시로서 생태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경기만에서 백령도에 이르는 갯벌과 염습지는 인천을 생태 도시로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평화, 통일, 환경, 생태의 개념은 인천이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화두이자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따라서 위 두 개념은 인천이 고유한 가치를 고민하며 이를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담론으로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심 있게 살펴본 부분이 시립미술관 개관에 앞선 사전 운영팀의 구성 문제입니다. 하드웨어로서의 미술관 건립도 중요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미래 가치에 부합하는 형식을 만드는 일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2027년 혹은 2028년 개관을 위해 건축, 콘텐츠, 소장품들을 총괄하는 책임 있는 관계자 선임이 급선무이고 합의된 방향성과 이를 향한 항구적 지원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이를 위해 비전과 미션에 대한 정의가 확립되어야 하고 주요 목표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개관 준비를 위한 팀장(감독) 뿐 아니라 전시기획,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마케팅 및 PR, 운영 및 관리 등 전문 분야별 인력의 모집과 선발이 우선되어야 하고 팀원은 책임과 역할이 명확해야 합니다. 또한 미술관 개관 전 준비해야 할 주요 일정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타임 라인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내고 연구하는 기반 조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발제 관련 질문들입니다.

<질문1>

인천은 다른 지역에 비해 시립미술관 설립이 매우 늦었습니다. 따라서 지역 미술계의 다양한 요구가 한꺼번에 분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기 다른 욕망의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한 상황에서 이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이 미술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부산시립미술관 운영 과정에서 이러한 지역 상황을 많이 겪으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균형 있게 안배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인천시립미술관이 인천의 정체성을 담아야 한다는 당위에는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인천의 정체성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선생님의 발표에서 인천의 역사, 문화,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과 같이, 인천 근현대미술의 현황을 보여주는 미술관, 현대미술의 다채로운 양상을 보여주는 미술관, 이주와 정착의 현장으로서 디아스포라라는 또 하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미술관, 그리고 인천에 거주하는 수많은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미술관 등의 위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현재 건립 추진 중인 뮤지엄파크 내의 미술관을 거점으로 삼고, 인천 곳곳에 시립미술관의 분관 체제를 구축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원도심 내 인천우체국에는 인천 근대미술의 발자취를 보여주고, 작고 및 원로작가의 궤적에 의미를 더해주는 근대미술 전용관을, 다문화 현상이 뚜렷한 부평에는 에스컴 부지 (캠프 마켓)에 디아스포라 속성을 축으로 하는 현대미술 전용관을, 그리고 서구나 계양구에는 어린이 미술관 혹은 미술교육을 주된 미션으로 하는 미술관을 분관 형태로 설립·운영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질문3>

인천에 단 하나의 미술관만 운영해야 한다면, 지역성과 글로벌화된 보편성 중 어느 부분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지역성에 방점을 찍는다면 전시뿐 아니라 그 전에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인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질문4>

선생님은 오늘날의 미술관이 ‘상품 광고와 미디어를 통해 넘쳐나는 가시화로부터 관객 확보를 위한 전략을 습득하여 활용해야 한다’ 고 하셨는데, 이와 관련하여 미술관 건축은 어떤 요소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미술담론

조 경 재*

이 글은 미술관의 내용과 구조,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이루어집니다. ‘인천의 지역성’ 이 미술관의 내용에 가깝다면, 그것을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제작할 수 있는 ‘인천시립미술관의 기능(구조)’ 은 제가 이 글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I. 인천의 지역성과 미술관

먼저, 인천시립미술관의 설립은 인천이라는 도시가 지닌 독특한 지역성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으며, 이 관계는 인천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맥락을 반영한 미술적 담론 형성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인천은 한국에서 중요한 해양 도시이자 국제 교류의 중심지로, 역사적으로나 현재적으로도 문화와 상업의 융합이 두드러진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인천시립미술관의 기획과 운영에 반영한다면, 미술관은 단순한 전시공간을 넘어 인천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성과 미술이 상호작용하는 독창적인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1. 지역성과 미술관의 정체성

인천은 1883년 개항 이래로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개항 도시로서, 다문화적 요소가 도시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차이나타운, 개항장 건축물, 항구 도시로서의 정체성은 인천의 역사적 자산뿐만이 아니라 특정한 시각적 미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 프로젝트 스페이스 코스모스 대표

이러한 요소들은 인천시립미술관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배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천이 서해안에 있는 해양 도시라는 점은 미술관의 공간적, 시각적 콘셉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해안의 자연경관과 조화된 전시연출 디자인이나 해양 환경을 주제로 한 전시기획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술관은 인천의 해양성과 자연적 요소를 시각 예술로 풀어내는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특성을 인천시립미술관에 직접 드러내는 것이 좋은 방향성인가는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강한 정체성은 분절된 한계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개항과 해양의 시각적 정체성은 확장될 수 있는 현대미술관을 축소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정체성이 아니라 개념적인 관점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좋은 방향성일 수도 있습니다.

2. 지역 주민과의 소통

인천시립미술관은 단순히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과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인천은 서울에 인접한 대도시임에도, 그 자체만의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해 왔습니다. 미술관은 지역 주민의 문화적 요구를 반영하고, 시민 참여형 프로젝트나 지역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인천만의 문화적 특성을 발전시키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인천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와 프로그램을 통해 미술관은 지역 예술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지역 예술가 발굴뿐만 아니라 외부 예술가의 유입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인천아트플랫폼이 대표적인 좋은 예입니다. 인천아트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외부 예술가들이 인천에 거주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었고 그 계기로 예술가 다수는 인천을 주 활동 지역으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예술가 유입은 지역 예술에 좋은 활력소 역할을 하게 만들고 다양성을 확장시켜 줍니다. 인천시립미술관은 지역 예술가와 더불어 다양한 외부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예술의 장으로 기획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글로벌 미술과 지역적 특성의 융합

인천은 개항 도시로서 국제적인 교류가 활발한 지역입니다. 송도국제도시와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도시로서, 인천시립미술관은 국제적 예술 흐름을 도입하는 동시에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독특한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적 현대미술과 인천의 지역적 특성이 결합한 전시나 프로그램은 미술관을 글로벌 아트 허브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지역성과의 연계를 유지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천은 역사적으로 다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은 도시입니다. 차이나타운, 개항장 일대의 서양식 건축물, 일본의 영향 등은 인천의 도시 풍경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미술관은 이러한 다문화적 요소를 주제로 한 전시를 기획함으로써, 인천이 지닌 다문화적 정체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교류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4. 도시 재생과 미술관의 역할

도시 재생과 문화적 허브의 역할: 인천의 오래된 개항장 지역이나 산업 지역은 재생해야 하는 곳이 많습니다. 인천시립미술관은 이러한 공간 재생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미술관은 지역의 과거를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예술 작품을 통해, 도시의 기억과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의 산업 유산을 주제로 한 전시나, 지역 건축물과 공공 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 재생과 예술이 결합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습니다.

5. 공공 미술과의 연계

공공 미술과 도시 공간의 연계: 인천시립미술관은 미술관 내부의 전시뿐만 아니라, 도시 전역에 걸쳐 공공 미술 프로젝트를 확장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천의 역사적 지역, 항구, 자연경관 등을 배경으로 한 공공 미술 프로젝트는 미술관이 도시 전체와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공공 미술 작업은 도시 공간을 예술적으로 재해석하고, 시민이 일상 속에서 예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립미술관은 인천의 독특한 지역성을 반영하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 국제적 예술 교류, 도시 재생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적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인천의 역사적, 지리적 특성과 미술관의 정체성을 결합함으로써, 인천시립미술관은 단순한 전시공간을 넘어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예술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II. 인천시립미술관의 기능과 구조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인천이 가진 특징을 기반으로 담론화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미술관이 더 유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구조적, 기능적 요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술관의 역할, 구조적 문제, 그리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술관의 역할

미술관의 첫 번째 목적은 “좋은 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전시”는 단지 유명한 작가의 작품으로만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마치 영화가 좋은 배우만으로 완성되지 않는 것처럼, 전시는 기획, 연출, 기술, 행정 등 여러 요소가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영화에서 배우뿐만 아니라 시나리오, 촬영기술, 편집 등이 중요한 것처럼, 전시 역시 작품 외에도 전시기획의 총체적인 완성도가 중요합니다.

한국 미술관은 유명한 작가의 작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작가의 명성이 전시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마치 영화에서 유명 배우만이 작품의 성패를 결정짓는 것과 비슷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작품과 전시는 별개의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단순히 유명 작가의 작품만으로 전시의 질을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유명하지 않은 배우로도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듯이, 미술 전시에서도 덜 알려진 작가들로도 충분히 의미 있고 질 높은 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전시 기획자의 창의성과 능력에 달려 있으며, 다양한 작가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작품을 새롭고 독창적인 방식으로 소개할 수 있는 전시기획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좋은 전시란 단순히 유명한 작품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는 기획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전시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 미술관 뼈대의 부재

한국 미술관은 관념에 많이 집중합니다. 이 글 앞부분에서 언급한 내용은 미술관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고민해야 할 부분은 뼈대입니다. 자체적인 시스템으로 기획 전반을 커버할 수 있는 미술관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걸만 번지르르한 미술관은 현대미술 시스템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독일에 있는 대부분(모든) 뮤지엄과 쿤스트페어아인은 자체적인 기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뮤지엄 뿐만 아니라 극장도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시스템입니다. 영화(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영화(전시)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기능인 겁니다. 하지만 한국 미술관과 극장들은 자체적인 시스템이 없어서 무언가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외부업체를 고용합니다. 여기서 생겨나는 문제점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까다로운 행정적 처리, 두 번째 엄청난 폐기물 생산, 세 번째 전시의 퀄리티입니다.

업체를 고용해서 한다는 건 과도한 행정적 절차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작가로 미술관에서 전시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행정적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가장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전시할 때 유연한 판단을 못 하게 합니다. 전시는 생물과 같아서 첫 계획으로만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전시를 진행하다 보면 첫 기획과는 다른 빠른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기획한 이미지랑 실제 공간 설치 모습이 너무 다를 경우 또는 설계의 오차에서 생기는 배치의 문제점 등등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항상 해왔던 방식, 또는 똑같은 구조로 전시를 반복적으로 재생산됩니다. 리스크가 큰 연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유동적으로 생기는 문제점을 대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시가 끝나면 바로 연출된 가벽과 바닥재는 대부분 폐기됩니다. 독일도 행정적 절차는 한국보다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행정적 서포터가 안되면 그것을 유연하고 대처

하는 방식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체적인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 만들 수 있는 기능은 유동적 가변성과 저탄소 미술관을 만들어냅니다. 즉 미술관의 하드웨어 요소의 필요성입니다. 이러한 하드웨어 요소가 갖추어 있으면 전시를 통해 만들어지는 폐기물의 양을 획기적으로 축소 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은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다고 합니다. 미술관 정신을 논하기 이전에 몸에 관해 얘기돼야 합니다. 이는 관념과 이념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몸의 유연성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인천 시립미술관이 멋진 캐비닛 미술관이기보다는 걷은 화려하지 않지만 스스로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미술관으로 운용돼야 합니다. 구조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전 미래형 미술관이 모습이 아니라 미술관이 가져야 하는 기본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전시의 퀄리티를 향상합니다. 매번 작품만 바뀌는 같은 형식의 전시에서 벗어나 연출이 가능한 구조적 시스템은 전시를 다양한 공간적 해석을 만들어냅니다. 매번 다양한 공간적 연출은 보는 이에게 더 강한 재미를 선사합니다. 이러한 재미는 관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어려운 비평으로 작품과 작가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변화를 인식시켜줄 수 있는 전시의 연출력은 관객이 자연스럽게 미술관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한 예시로 한국 애니메이션이 기술과 시나리오가 부족해서 성공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기술과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방식, 즉 편집력이 가장 약했던 것입니다. 전시 또한 공간적 해석으로 만들어내는 시각적 편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3. 미술관의 기능성 필수조건

첫 번째는 공간 분할, 두 번째는 모듈 제작, 세 번째는 구성원 즉 사람입니다.

공간 분할은 건축 설계 단계에서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시공간 제작, 창고, 작품 적재 등 실질적으로 한국 미술관에서는 삭제된 공간이 몇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공간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이 공간에 어떤 모듈을 사용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즉 모듈이 건축 설계와 동시에 계획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저장공간(창고)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고 폐기물이 최소한으로 나오는 방식의 모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듈을 기반으로 공간이 분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공간과 모듈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걸 다루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즉 실질적으로 전시를 만들

수 있는 팀이 미술관 내에 필요한 겁니다. 현재 미술관과 극장을 보면 이러한 인력들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시를 만드는 인력이 아니라 관리자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유지, 보수의 관점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4. 기능성을 갖춘 미술관의 변화

이러한 하드웨어적 구조적 시스템이 존재하게 되면 소프트웨어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운영의 순발력이 생겨납니다. 행정적 처리가 없어지면서 바로 해결이 가능한 능력을 탑재하면 기획의 방향도 적극성을 만들어냅니다. 기획의 선도성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장르의 확장성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장르의 확장성은 관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실행될 수 있는 시스템 속에서 장르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점점 미술관과 극장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미술관에서도 극장 형태의 퍼포먼스 공연이 많아질 것이고 이러한 장르의 확장성을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시스템이 갖추고 있을 때 가능해 자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미술관의 기본 구조와 기능을 개선함으로써 전시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통해 환경적, 창의적 측면에서 발전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술관의 필수조건이며, 특히 인천 시립미술관이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전시 기획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미술담론’에 대한 토론문

정 지 은*

미술관의 내용과 구조에 초점을 맞춘 조정재 대표님의 발제문을 잘 읽었습니다. 대표님은 미술관의 내용을 인천의 지역성으로,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제작할 수 있는 미술관의 기능을 구조로 제안하셨습니다. 대표님의 발제문을 읽고 서울시립미술관과 부산시립미술관, 시카고미술관의 비전을 찾아봤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사용자, 매개자, 생산자가 함께 공동의 기억’을 만들고, ‘서울형 네트워크 미술관’을 지향합니다. 부산시립미술관은 ‘시각예술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를 아우르는 문화예술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부산이 해양수도이자 국제 관광도시로 자리잡는데 기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카고미술관은 ‘모든 예술은 특정한 맥락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을 인식하고, 현재에 맞는 역동적인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보며, 미술관이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인간 창의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영감을 주는 모임의 장소’로 기능해야 한다고 합니다.

언급한 3개 미술관의 비전을 참고하면서, 대표님이 말씀하신 5가지의 특성 중에서 인천시립미술관이 가장 중요하게 가져가야 할 정체성과 방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인천의 지역성을 미술관에 직접 드러내는 것이 좋은 방향성인지 고민해봐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사실 개항과 해양 관련 정체성은 인천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아니며, 부산이나 군산처럼 인천의 정체성과 유사점을 공유하고

* 성북문화재단 문화도시추진단장

있는 도시들과 차별화된 지점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 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대표님이 구도심에서 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느끼는 지역 미술 담론의 현황과 민간 공간과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도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인천 미술 담론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시간과 과정 없이는, 이후 시립미술관이 만들어갈 ‘좋은 전시’가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도권을 광역으로 사고해 서울, 경기, 인천의 교류와 협력을 높이고, 수도권 전체 미술관의 현황에 비추어 인천시립미술관의 역할을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역의 고유성에 따른 역할과 수도권 전체를 바라보는 이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AI시대의 미술관 전략과 기술 접근성

김 노 암*

올해 노벨문학상은 우리나라의 한강이 받았다. 매우 축하할 일이다. 그녀가 노벨문학상을 받은 이유는 인류가 이루어온 정신과 윤리, 예술과 미학이 조화롭게 그리고 보편적으로 발전해 온 가치 기준에 부합하는 창작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는 문학이 아니어도 우리 현대미술 문화에도 적용되는 보편적 가치이기도 하다. 거시적으로나 미시적으로 오늘날 미술관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구성요소이기도 하다.

한편 우리의 관심을 모은 노벨상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분야는 과학 분야이다. 노벨 물리학상이다. 올해 노벨물리학상은 머신러닝과 인공지능망 기술을 개발한 존 홉필드(John Hopfield · 91)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와 제프리 힌튼(Geoffrey Hinton · 77)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가 받았다. 힌튼 교수는 컴퓨터 과학자이다. 그럼에도 그들이 개발한 딥러닝과 인공지능망 기술이 물리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노벨 화학상은 단백질 구조 예측 AI를 만든 구글 딥마인드 연구진과 세상에 없던 새로운 단백질을 만드는 AI를 개발한 데이비드 베이커(David Baker · 62) 워싱턴대 교수가 받았다. 기존에 1년 이상 걸리던 단백질 구조 분석과 예측을 단 몇 분이면 할 수 있게 되었다. 노벨 위원회는 선정 이유가 이들의 연구가 인류 이익을 위해 엄청난 성과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학계에서는 올해 노벨상 선정에 대해 그들이 정통 물리학자나 화학자 또는 생물학자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는 논쟁이 있었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UCL)의 천체

* 휴아트&미디어랩 대표

물리학자 조나단 프리차드 교수는 “노벨상이 AI에 대한 과대광고로 상처를 입었다...기계 학습이나 인공신경망을 좋아하지만 이것이 물리학적 발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이런 목소리는 AI 업계에서도 나온다. AI 스타트업인 페블러스의 이정원 부대표는 “물리학상을 AI가 받은 건 의외”라며 “이론을 세우고 증명하는 식의 과거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AI가 노벨상을 받은 건 너무 뜻밖의 결과”라며 “과학이라는 건 가설을 만들고 그 과정을 상세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의 AI 기술은 블랙박스처럼 결과가 나오는 과정과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고 말했다. 그는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안겨주는 일”이라고 덧붙였다(조선일보).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앞으로 창의적인 일에 종사하는 어떠한 분야도, 또는 그 누구도 AI와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 관계에 놓인다는 의미다.

기술발전과 미술문화

인류가 하나의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는 점을 인상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다. 2016년 3월, 한국의 이세돌 9단과 구글 딥마인드의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국이다. 인간 대 인공지능의 두뇌 대결에서 이세돌 프로의 승리를 예견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결과는 4:1 알파고의 승리로 끝났다. 그 후 AI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였고, 세계적인 바둑기사들은 AI와 대국하며 바둑을 연구하고 시합에 임한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23년 5월에는 ‘인공지능(AI)의 대부’로 널리 알려진 제프리 힌턴(75) 박사가 구글을 퇴사하면서 AI 발전이 인류문명에 위협하다고 경고했다. 힌턴 박사는 미 ‘뉴욕 타임스’에 보낸 성명을 통해 자신의 업적을 후회한다고 밝히며 구글에서 사표를 냈다. 힌턴 박사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AI 챗봇으로 인한 위험 중엔 “매우 무서운” 내용도 있다고 밝히며 지금 당장은 AI가 우리보다 지능이 높은 건 아닙니다만, 곧 넘어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힌턴 박사는 영국계 캐나다 출신 인지심리학자이자 컴퓨터 과학자로, 선구적인 딥러닝과 신경망에 관한 연구로 ‘챗GPT’와 같은 현재의 AI 시스템의 길을 연 인물이다. 그는 AI가 인간이 지닌 지능과는 매우 다른 종류라는 결론을 내렸다면, 인간은 생물학적 시스템이지만, AI는 디지털 시스템이고, 가장 큰 차이는 디지털 시스템에선 같은 복사본이 더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AI는 개별적으로 학습하면서도 즉시 지식을 공유할 수 있어서 마치 1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이 무언가를 배울 때마다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이를 알게 되는 것과 같아서 챗봇이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제프 딘 구글 수석과학자는 “우리는 AI 분야에서 책임감 있는 접근법을 고수한다. 이로 인한 새로운 위험 요소를 이해하는 동시에 과감히 혁신하는 법을 찾고자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한다” 라고 밝혔다. 이후 양과 질 측면에서 전 지구적으로 AI 기술을 인간이 어떻게 적절히 통제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지 다양하고 깊은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AI가 무인 로봇(드론 등)과 결합함으로써 유통에 혁명을 일으켰으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주었듯 살상 무기 분야에서도 빛나는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딥페이크에 의한 가짜 정보의 제작과 확산인데, AI가 어떤 형태로 결합하느냐, 그리고 그 도덕적 지향점이나 기준이 무엇이나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낳는다.*

공립미술관의 건립과 현실

인천시립미술관이 준비 중이다. 처음에 어떤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렸느냐가 중요하다. 또 어떤 비전과 방향성과 추진력을 위한 시설과 인력과 조직구조 역시 중요하다. 오늘날 현대미술관은 시간과 공간에 간혀 지역과 시대에 협소하게 제한받아왔던 예술적 미적 경험을 뛰어넘는 역할과 비전을 목표로 한다. 미술관은 세계 보편적인 현대미술 문화와 지역의 전통과 독자적인 문화가 긴장과 충돌과 융합의 과정이 펼쳐지는 플랫폼이다. 역사가 오래된 전통적인 미술 양식 또는 장르와 20세기 이후 차례로 등장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등장한 미술 양식이 혼란스럽지만 또한 자유분방하게 혼재되어 온 현대의 예술문화 현황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런 현실을 잘 반영하고 제시하는 플랫폼을 기대한다.

* 2002년 6월 디트로이트 공항에서 아랍 이민자 출신 미국인 하산 엘라히(Hasan Elahi)는 FBI에 테러 혐의로 체포되었다. 플로리아의 한 창고에 폭발물을 가득 쌓아놓고 있다는 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얼마 후 폭발물 소지 혐의는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었고 그는 곧 풀려났다. 그러나 FBI는 그의 무혐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그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대신 그에게 FBI에 주기적으로 행방을 보고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하산 엘라히는 그 명령에 따르기로 하였고 이내 그는 필요 이상으로 그 명령에 충실하여 오히려 FBI 측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하산 엘라히는 자신이 어디에 있으며 그날 하루의 일상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매일 수 백 장의 사진으로 기록하여 웹사이트에 올린 것이다. 현재까지도 그의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그가 그날 먹은 음식과 아이스크림, 과자, 음료수, 그가 방문한 곳, 예를 들어 대학 강의실(그의 직업은 예술가이자 교수이기도하다), 화장실 등 시시콜콜한 그의 하루를 GPS를 이용해 기록하고 올리고 있다. 국민의 혈세로 자신을 감시할 당국의 불편함을 과도하게 덜어주고자 자신의 사생활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작업은 오히려 그 과도한 충실성으로 당국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하산 엘라히는 명민하게도 자신에 관한 정보가 누구나 쉽게 접근하는 정보로 만들었고, 이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이기에 가치 있는 정보를 다루는 정보당국의 활동을 무력화하는 작가의 전략이었다. 그것은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시장의 원리와 같다. FBI 당국을 빼고는 그의 사이트는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매우 인기 있는 사이트가 되었다.

국공립미술관들은 저마다의 비전과 미션이 있고 그 성공과 실패의 서사가 있다. 역사가 보다 오래된 타지역 공립미술관들과의 비교가 불가피하고, 세계 미술계에서 우리 현대미술 문화의 위상과 현실을 반영하여 높은 예술성과 공공성을 반영해야 한다. 무엇보다 새로운 미술관이 계속 개관하고 있기에 개관 초기에 우리 사회와 미술계에 깊은 인상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미술관 경영전략과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다양한 입장과 시각이 복잡한 불화와 갈등, 긴장을 낳고 또 그것이 반복되면서 본래 미술관이 지향했던 비전과 목표를 상실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립미술관은 균형감을 유지하면서 현명하면서도 유려한 정책과 운영을 요구받는다.

국공립미술관이 정상적인 체계와 구조를 갖추고 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컨센서스가 선행되어야 하고, 미술인과 시민들의 미술의 애정과 이해를 바탕으로 정부와 의회, 미술전문가그룹의 협력관계가 안정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미술관 개관 이전, 정책 수립과 여론 수렴을 비롯한 복잡하고 어려운 준비 과정이 적어도 10년 이상 걸리는 사례들을 생각해보면, 오랜 시간 미술인들과 미술정책, 행정전문가 그룹과 정부, 의회, 시민의 이해와 협력 과정과 경험이 풍부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쌓여야 한다.

전통미술과 현대미술, 근대미술과 현대미술, 회화와 조각, 미디어아트와 인터랙티브아트, 시민을 위해 체험과 경험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아트, 어린이 미술관, 찾아가는 미술관 등. 시민들이 요구하는 공립미술관의 역할과 기능은 많고 넓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미술관의 인력과 조직, 예산과 정책, 운영과 관리 등 그 역량이 받쳐줘야 한다.

이러한 이상적 정책과 운영을 위한 자원은 언제나 제한적이고 부족하다. 그러므로 때면 보다 중요한 주제와 문제에 자원을 선택과 집중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이상과 현실을 매개하고 극복하며 일정한 성과를 내는데 있어 무엇보다 뛰어난 역량을 지닌 전문가그룹과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제한된 인력과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목표에 집중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AI와 같은 기술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해진다. 전시연출과 구성을 위한 건축공간의 기술적 문제와 안전 문제를 해결하거나 세무 회계와 법무를 포함한 경영지원에 효율성을 갖출 수 있다.

현대미술 문화와 공립미술관의 역할

밀레니엄 이후 우리 사회에 미술관과 박물관이 그 수와 규모와 질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한편으로는 공공미술이 급성장한 시대였다. 공공성, 공공의 가치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실천은 진심이었다. 어느 정부가 들어서건 공공미술 문화는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그것은 현실적이지만 동시에 비극적이었다. 미술이 공공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면서 창의적 개별자로서 개인의 가치는 축소되어왔다.

과거의 미술과 현재의 미술에 대한 평가와 미적 이념은 지속적으로 변해왔다. 미술관은 지속적으로 과거와 현재, 미술과 사회를 상호반영, 상호영향을 거울처럼 반영한다. 변화된 현실을 도외시하고 과거에 형성된 미술 관념과 기준에 끊임없이 변화하고 역동하는 현재의 미술을 맞추려 한다면 시대착오적일 수밖에 없다.

새로운 작가나 작품, 전시와 비평을 만나는 것은 끊임없는 긴장과 도전의 연속이다. 현실은 그러한 도전을 점점 어렵게 만들고 있다. 현대미술에 관한 본격적인 담론을 찾기 어렵고, 있다 하더라도 특정 입장에 고착되거나 다소 고루한 인상이다. 이미 ‘현대’라는 말을 붙여쓰기에 ‘현대’의 역사가 오래되어 버렸다. ‘새로움’의 빠른 등장과 퇴장, 생성과 소멸의 운동이 점점 더 가파르게 빨라지면서, 더이상 ‘새로움’이 새롭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움’에 대한 담론 또한 활력이 빠져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남는 것은 현대미술에 대한 정량적 통계와 성과만이 남는 것처럼 보인다.

공립미술관은 이러한 시장의 욕망과는 일정한 안전거리를 두고서 갈등하고 고투하는 예술가 개인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야 한다. 공립미술관은 가장 사적인 세계가 가장 공적인 가치와 만나는 사건의 현장이다. 일반화를 거부하는 비정형적인 개인과 보편적인 가치와 평균적 인식이 만나는 사건의 장소이다. 창작자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미술계와 세계 미술계, 시장과의 긴장과 갈등, 화해 등 일정한 관계의 균형을 맞추면서 자신이 속한 시대와 사회의 당대성을 벗어나 미래로 나아간다.

전망

미술관은 지역의 미술 문화의 창작을 위한 플랫폼이자 연구 기관이다. 매 순간 미술관의 비전과 정체성에 대한 철학이 요구된다. 인천 경기 지역의 자연생태와 생활 환경과 지역 경제와 정치 문화 등 복잡한 현실에 대해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투여해야 한다. 서울 수도권과 지역 간의 네트워크, 민간과 공적 영역의 진지한 파트너십, 다른 층위의 시각과 의견, 경험을 더 진지하고 겸허하게 수용하고 성찰해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서울 수도권 중심의 문화예술의 힘에 주변부로 점차 경쟁력을 상실해가는 지역 문화예술계의 어려운 상황은 인천지역도 동일하게 겪고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의 국내와 국제 관계 이상으로 중앙과 지역의 문화예술 인프라와 역량을 비교하게 된다. 미술가들의 상당수가 해외 유학을 통해, 또는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으로 국제적 안목과 비전은 수준급에 도달했으며 이는 밀레니엄 이후 인터넷을 통한 정보화 사회가 가속되면서 국제적인 예술 활동과 동시대적으로 공감하고 참여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지역의 창의적 인재들이 자신들의 예술적 창의를 시험하고 그 역량을 표현하기 위해 해외나 서울로 이동하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그에 따라서 지역 간 문화예술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창작의 자기 동력을 회복하는 데 공립미술관의 역할과 비전이 있다. 지역의 전도유망한 미술가들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지원하는데 더 많은 노력과 사려 깊은 정책이 필요하다.*

* 미혼율 증가, 출산율 저하, 고령화는 물론 1인 가구의 증가도 사회변화를 낳고 있다. 우리 사회의 1인 가구는 이미 2015년 27%에 달했다. 1인 가구 증가는 간편식의 증가와 이에 따른 영양 불균형과 다양한 건강 문제, 혼자 있는 시간의 증가로 사람들 간의 사회적 활동의 감소와 그에 따른 정신적 고립과 당면한 정신질환, 정치적 무관심 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 부담은 더욱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야 하는데, 우리 사회의 충분한 재정이 확보될지도 불확실하다. 우리 사회가 저성장 사회로 진입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는 공공재원의 현실을 고려해보면 우리는 어떤 도시재생과 문화예술정책과 실천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총체적 난국을 풀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약 30년 안에 수도권 또는 대도시와 그 주변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지역 커뮤니티가 사라질 것이다. 지역 소도시, 읍과 면에는 더 이상 사람이 없게 된다. 도시재생이란 곧 대도시 재생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인구학에서 보면 지역 소도시의 운명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소도시들은 소수의 원주민과 대다수의 여행자, 관광객으로 채워질 것이다. 남북 분단 상황을 고려해보면 군부대가 있는 지역은 그럭저럭 살아남을 것이다. 이러한 예측은 이론의 여지가 없이 분명하다. 인구감소의 영향은 지역으로 갈수록 심각하다. 인구 10만 이하의 소도시를 줄어드는 세수로 인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

공립미술관은 미술관과 박물관, 도서관 등의 기능을 동시에 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다문화, 다원사회 문화 속의 예술과 소통을 위한 다장르 간 창조적 협력이 필요하다. 장르와 장르, 예술과 비예술, 예술과 일상, 예술과 인문학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한 새로운 비전과 형식을 만드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다양한 네트워크 미디어와 의사소통의 기술이 필요해진다. 비근한 예로 코로나 시기 세계적으로 급성장한 회사가 온라인 기반 화상회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ZOOM 이다. 또한 일론 머스크가 7천 개 이상 쏘아 올린 스타링크 인공위성 서비스이다. 이미 80년대 이후부터 현대미술에서는 이러한 대화 형식을 가져온 의사소통 형식의 프로젝트가 많이 기획되어왔다. 또한 이러한 기획들은 과학기술 프로그램에 기반한 개념미술가들과 미디어 아티스트들에 의해 확산되었다.

기획의 기본 방향은 현대예술의 흐름을 읽고 중심 이슈와 관련된 작업과 작가들을 중심으로 한 전시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립미술관은 주요 기획전시를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전국 주요 미술 기관을 비롯해 기획자와 창작자들의 네트워크를 확대 지속해야 한다. 현재 전시의 형태를 띠면서도 일종의 정보와 지식과 관련된 새로운 형태의 아카이브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왔다. 기존의 아카이브 프로그램과 미디어 아카이브를 적극적으로 창작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아카이브와 워크숍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한다. 온오프라인 상의 현대미술 아카이브 문화가 정착되어가는 시기에 공립미술관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적은 투자로 다른 기관과의 비교 우위를 확보하며 큰 효율을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고 네트워크 기반 아카이브에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전략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미술관과 박물관 대학 관련 기관들과의 공동작업을 통한 해당 지역의 현대미술 문화의 붐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러한 기획은 일관되게 전국 주요 도시의 문화 예술 기관과의 사람과 프로그램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국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창의적인 기획자들, 평론가들, 창작자들 그리고 전문적인 관객들의 활발한 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역 문화기관과 함께 전국 주요 창작공간과 연결되어 전국의 창의적인 동시대 예술가들과 교분을 나누고 상호 자극과 격려를 받을 수 있어야 비로소 국내는 물론 세계 미술계에 의미있는 철학과 메시지를 제시할 수 있다.

아야만 재정을 꾸려갈 수 있지만 중앙정부의 재정도 여유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어두운 전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고려해야 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 정해진 미래에 문화예술로 도시재생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을까?

한 사회의 문화 예술적 역량이란 그 사회가 한 개인(예술가)의 자유를 최대한 확대해 인정하느냐에 달렸다. 공립미술관이 국내외 주요 공립 및 민간 미술관들과 네트워크를 확대하며 창작자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실험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된다. 생각해보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등 사회경제의 현실에 변화하면서 공립미술관의 역할이 증대해 왔다. 이런 현실 속에서 창의적이어야 할 미술 문화가 AI기술과 만나 앞으로 예술과 현실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 틀림없이 예술과 기술과 경제, 사회가 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가는 현실은, 역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튀어나가는 예술가들의 놀라운 상상력과 깊은 사유에 의존하게 된다.

‘AI시대의 미술관 전략과 기술 접근성’ 에 대한 토론문

염 지 희*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다양한 개인적 혹은 사회적 요구들이 발생합니다. 점점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 그에 비해 한정적인 자원은 미래를 고민하게 하고 ‘지속가능성’이라는 화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정적인 자원을 대신할 수 있다는 면에서 AI는 그 자체로서 혹은 모티프로써 다양한 차원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단초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정의를 잠시 살펴보자면, 1987년 브룬틀랜드 보고서(Brundtland Report)에 등장하며 지속가능성이란 “미래 세대의 가능성을 제약하는 바 없이, 현세대의 필요와 미래 세대의 필요가 조우하는 것”이자, 불확실한 미래에도 사람과 환경에 모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태학적 용어으로써 지속가능성은 생태의 작용, 기능, 생물 다양성, 생산을 미래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로 지속가능성은 사회, 경제 및 기후,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습니다. 예술의 범주에서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보다 더 인문학적인 시선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술을 통해 이야기해야 할 지속가능성은 무엇이고, 미술관과 같은 예술 관련 기관의 유의미한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 2024 인천미술 올해의 작가

미래의 예술 생태계를 열어가기 위해 지금, 현재의 예술 생태계를 되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술관은 예술 생태계를 생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도적인 틀과 제약을 만들 내기도 합니다. 미술관과 현재의 예술이 처한 제약들, 곧 미래 세대의 예술적 가능성을 제약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미래의 미술관의 가능성을 제약하는 바 없이, 현재의 미술관과 ‘미래의 미술관’의 필요가 ‘조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최근 손석희 아나운서의 프로그램에 출연한 황석영 작가가 언급한 AI에 대한 견해가 흥미롭습니다. 그는 ‘좋은 질문이 있어야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다’, ‘자신의 콘텐츠가 있어야 AI를 도구로서 잘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종종 AI 창작 ‘콘텐츠’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바라보듯 마법적인 환상과 욕망이 투영되곤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경험과 통찰에서 비롯된 삶의 연금술적인 ‘콘텐츠’가 우리에게 내재해 있을 때, AI를 활용한 유의미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김노암 대표님께서 AI 시대와 미술관의 관계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모색을 상당히 넓은 스펙트럼으로 제시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AI 기술을 미술관에 적용하여 내부 인력과 전문성의 효율을 높이는 것, 미디어 아카이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 AI 시대에 창의적인 질문을 제시할 창작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역량 강화를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교류와 협력의 네트워크 구축을 강조하신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래의 미술관에 주어질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시스템을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미술관이 질문을 생산하고 활발한 교류를 만들어 가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할 때, 살아있는 기관이 되어 지속가능성을 담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술관은 마치 영화 <인테스텔라>에 등장하는 책장의 뒤편처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은 4차원적인 도서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리에서 떨리는 시계바늘처럼 낯선 이미지들을 통해 마치 미래에서 보내온 듯한 기이한 메시지를 던져 주기도 합니다. 어쩌면 미술관은 AI 시대 속에서 결코 ‘정답’을 내어주지 않는 유일한 곳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아가 ‘좋은 질문’을 재차 질문하는 것이 미래의 미술관에 주어진 미션일 듯 합니다.

예술가의 정체성으로 딥러닝 한 AI가 도슨트와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대신한다거나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떤 현상이 만들어질까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혹은 감상자가 AI를 활용해 스스로 전시를 큐레이팅하고 미술관은 점점 가상 공간화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이번 발제문에 포함된 내용 외에도 현재 AI 시대를 맞이하며 몸소 체험하시는 예술문화 전반의 새로운 국면과 변화가 있으실지, 나아가 먼 미래의 미술관을 어떤 모습으로 상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AI 시대에 인류와 공동체의 본연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치 네트워크의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미술관과 외부 기관 간의 공동작업과 교류와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행일 2024년 10월 31일

© 2024 인천시립미술관 건립/개관 사전홍보 프로젝트
이 자료집에 수록된 글과 이미지의 저작권은
각 저자에게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www.incm-project.com

2024 인천시립미술관 건립/개관 공개포럼



다양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미술관

문의 인천광역시 문화기반과 시립미술관팀
김아림 학예연구사
Tel. 032-458-7244 alim0200@korea.kr